

수입차시장 주도권 경쟁 치열… 고성능 신차·전동화 ‘승부수’

BMW 상반기 수입차시장 판매 1위
완전 변경 1·2시리즈 등 라인업 확대

벤츠 하반기 최대 규모 신차 출시
본사 ‘리테일 오브 퓨처’ 전략 적용

BMW가 올해 상반기 3만8000여 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시장 1위 자리를 지켰다. 메르세데스-벤츠는 3만2000여 대로 2위를 기록하며 바짝 추격했지만, 두 브랜드 간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 하반기에는 양사가 고성능 신차와 전동화 전략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한국수입자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BMW는 상반기 총 3만8280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점유율 27.7%를 차지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같은 기간 3만2575대(23.5%)를 판매해 2위에 올랐다. BMW는 지난해 상반기 4918대였던 벤츠와의 격차를 올해 5720대로 더 벌리며 우위를 공고히 했다.

차종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1만3554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BMW 5시리즈는 1만2786대를 기



BMW i5 xDrive 40

록했다. BMW는 5시리즈 외에도 X5(3026대), X7(2421대), X3(3280대) 등 고급 SUV 라인업을 앞세워 꾸준한 수요를 이끌었다. 벤츠는 E클래스를 축으로 GLC(4261대), GLE(3061대), G클래스(1870대) 등 주력 SUV 모델이 판매를 뒷받침했다. 특히 G클래스는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02.8% 급증하며 벤츠의 럭셔리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양사 간 경쟁은 치열했다. BMW는 i5(828대), iX3

(531대), iX(376대), iX1(319대), i4(236대) 등 다양한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통해 시장을 넓히고 있다. 반면 벤츠는 EQE가 412대 판매되며 체면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여파가 여전히 소비자 신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반기 경쟁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벤츠는 내년까지 전동화 모델을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의 신차를 쏟아낼 계획이다. 신형 CLA, AMG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모델, S클래스 페이스리프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E클래스.

트 등이 대기 중이다. 또 국내에는 본사의 ‘리테일 오브 퓨처(ROF)’ 전략을 적용해 직판제를 본격 도입하며 유통 구조 변화를 시도한다.

BMW는 그룹코리아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한정판 모델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520i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은 출시 1분 만에 계약이 마감됐고, ‘X5M 스포츠 프로’도 5분 만에 완판됐다. 오는 8월에는 완전 변경된 1·2시리즈의 가솔린 및 고성능 버전이 출시되며 소비자 선택지를 넓힐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BMW가 폭넓은 라인업과 공격적 물량 공급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면, 벤츠는 럭셔리·전동화 부문에서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특히 직판제 도입, 가격 정책, 신차 출시 시기 등이 하반기 시장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차 시장의 소비 트렌드가 ‘프리미엄 브랜드 + 전동화’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만큼 양사 간 전략 차별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한경협, 내수 활성화 ‘맞손’

소비 촉진 등 공동 캠페인 추진
노란우산 가입자 휴가장려 이벤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내 휴가 장려, 지역 소비 촉진 등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7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 확산 ▲지역 화폐·온누리상품권 활용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중기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진작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별도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83억 원 규모의 국내 휴가 장려 이벤트도 병행한다. 신규 가입자 10만 명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소상공인 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기존 가입자 2만 명에게는 전국 주요 리조트 10곳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부의 추경만큼이나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내수 회복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경제계를 대표하는 양 기관의 협력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전자서비스, AS부문 고객만족도 1위

서비스 품질 우수성, 혁신성 등 최고점

삼성전자서비스가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전자제품 AS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 평가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삼성은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7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 혁신성, 전문성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삼성은 산업정책연구원 주관 ‘국가서비스대상’,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 이어 국내 주요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연이어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단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

이고 있다. ‘스마트싱스’ 기반의 AI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고객이 제품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3~4월 에어컨 사전점검 캠페인에서 AI 진단 기능을 활용한 고객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현장 서비스에서도 AI 기술이 적용된다. 출장 엔지니어는 ‘스마트 진단 앱(HASS)’을 활용해 제품 상태와 고장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 또 전국을 1,000여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기술력과 수리 시간 등을 고려해 최적의 엔지니어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AI 기반의 정밀 진단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제주항공, 中 노선 운항 확대… 무비자 여행 수요 대응

25일부터 부산~상하이 신규 운항

제주항공이 한국과 중국간 제한적 무비자 정책으로 양국간 여행 수요 증가가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 노선 확대에 나선다.

제주항공은 오는 7월 25일부터 부산~상하이(푸둥)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신규 운항하고, 10월 1일부터는 인천~구이린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운항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중국 노선 확대는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이후 중국을 찾는 여행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제주항공의 올해 중국

노선 수송객 수는 1월 3만1000여명에서 6월 5만4000여명으로 월평균 약 12%씩 꾸준히 증가했다. 탑승률도 1분기 70% 중반대에서 2분기 80% 중반대로 상승했다.

부산~상하이노선은 월·수·금·일 일정으로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10시 15분(현지시간)에 출발해 상하이푸둥 국제공항에 다음 날 오전 0시 5분에 도착, 상하이에서 오전 4시에 출발해 김해에 오전 6시 4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인천~구이린 노선에는 수·목·토·일 일정으로 인천공항에서 오후 9시 25분에 출발해 구이린 량장국제공항에 다음

날 오전 0시 40분에 도착, 구이린에서 오전 1시 40분에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온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제주~시안 노선에서 주 2회(화·토) 일정으로 운항을 재개했고 인천~웨이하이 노선은 10월 25일까지 주 3회, 인천~엔지노선은 8월 26일까지 주 1회를 증편해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3분기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어서 국내 방문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혁신의숲 “스타트업 투자규모 증가 추세”

헬스케어·제조 등 기술분야 집중

2025년 6월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헬스케어·제조 등 기술 기반 분야에 집중했다.

스타트업 성장 분석 플랫폼 ‘혁신의숲’은 2025년 6월 스타트업 투자결산을 통해 지난달 투자 건수가 85건, 투자금액은 약 4679억 원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5월(61건, 약 2273억 원) 대비 각각 39%, 106% 증가한 수치로, 올 들어 가장 뚜렷한 반등세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헬스케어·바이오 산업이 약 1676억 원을 유치하며 3개월 연속 투자유치금액 1위를 차지했다. 제조·하드

웨어 분야도 약 123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7배 이상 급증하며 2위에 올랐고, 인사·비즈니스·법률 분야가 약 43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투자 건수 기준으로는 제조·하드웨어 분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케어·바이오(17건), AI·딥테크·블록체인(10건) 순으로 집계됐다. 제조분야는 전월 대비 거래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해 양적 성장과 함께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의숲은 이번 반등이 단기 이벤트성 변화라기보다 기술 중심 스타트업에 대한 신뢰 회복, 정책 자금 유입, 산업 구조 재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빛나 기자